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제581호

지면안내

03 사회  
돈에 낚인 청년, 스포츠도박의 먹잇감

04 기획  
돌봄의 무게를 짊어진 청년들, '영 케어러'

05 사람  
도전과 용기가 키워낸 열정의 쇼호스트

08 광고  
제37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 재개발 중단... 완공 일자 미뤄졌다



▲본교 우촌관 건물 앞, 삼성동 일대에서 진행되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다. 재개발 구역의 '철거신고' 이후, 삼성제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력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당초 계획상 착공은 작년 하반기에 진행됐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제5구역재개발의 '착공신고'는 지난 7일에서야 성북구청에 접수됐다. 공사는 구청에서 접수된 내용의 검토가 완료된 후 추진될 예정이다. 결국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던 재개발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지연됐다. 이에 대해 전정배(법인사무국) 사무국장은 "공사 때문에 등하곳길이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현재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사의 지연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안전한 보행로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창의융합대학 내 '융합보안학과' 신설

2023학년도부터 창의융합대학 소속으로 '융합보안학과'가 신설된다. 해당 학과는 오는 수시모집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며 총 40명을 주간 단독 소속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은 기획조정처장과 총장이 각각 주관하는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융합보안학과는 비교적 특정 인재 육성의 목적이 뚜렷한 특성화 학과로, 교육과정은 아직 미정이며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학과는 정보시스템트랙, 사물인터넷트랙, 사이버보안트랙 등의 소속 교수로 교수진이 구성될 계획이다.

융합보안학과는 최신 보안 및 암호 기술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정보 보호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해당 학과 소속 학생은 ▲해킹 ▲AI 보안 ▲블록체인 ▲자율주행자동차보안 ▲양자보안 ▲차세대통신보안(5G/6G) 등 정보 보안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예정이다.

융합보안학과에 대해 박용훈(전략기획팀) 팀장은 "해당 학과를 통해 혁신적인 교육 모델의 도입 및 확산을 이뤄, 본교의 교육 생태계가 고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 공학관 화재, 인명 피해 없어



▲지난 12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학관 B동 6층

은 대학본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수령해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령까지는 대략 1달의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사건은 공학관 내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시작했다. 보안업체 직원은 즉시 화재 사실을 소방서에 신고했고, 화재경보기가 울린 지 2분 만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약 40분 동안 화재 진화 작업이 이뤄졌다. 화재 발생 당시 대피할 인원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 인원 역시 없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는 6층 천장에 있는 내부 배관이 파손돼 일부 사무실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자산관리팀의 직원 일부가 해당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박철우 총무부처장은 "더 큰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복도에 샌 물음 자산관리팀 직원들과 호스를 이용해 화장실 배관으로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순간부터 복구작업에 돌입했으며, 이는 9월 16일을 마지막으로 완료됐다. 구체적으로는 ▲공학관 내 사무실 청소 ▲방·온수 배관 복구 ▲누수가 발생한 사무실 관리 ▲누전 및 전등 점검 ▲네트워크 점검 ▲에어컨 냉매 주입 ▲그늘린 복도 도장 등의 복구작업이 이뤄졌다. 박 총무부처장은 "공학관 사용에 최대한 지장이 가지 않도록 연휴 기간도 쉬지 않고 복구작업을 진행했다"며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대응체계 매뉴얼을 갖추면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2학기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확정

'2022학년도 하반기 1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를 통한 주요 학생자치기구의 예산안 인준이 지난 15일 이뤄졌다. 이번 하반기 예산안은 총 51,021,730원이 인준됐으며, 모든 예산안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총학생회 'BASE'의 하반기 예산안은 총 29,640,350원이 승인됐다. 세부 항목에는 ▲대동제 ▲프린트 사업 ▲낙산제전 ▲음료수거함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카카오톡 채널 단체 메시지 등이 포함됐다.

총대의원회 '순백'은 총 4,105,500원을 예산으로 인준받았다. 세부적으로 ▲총선거 ▲대의원 학교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우수 대의원 선정 ▲판례집 등이 있다.

학생복지위원회 '하늘'의 예산은 총 1,530,060원이다. 세부 내용은 ▲자격증 교재 배부 ▲대동제 ▲인바디 ▲빠빠로 데이 이벤트 ▲대여 물품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중간·기말 간식 사업 등으로 이뤄졌다.

동아리연합회 '동화'의 하반기 예산은 총 627,100원이 인준됐다. 세부적으로 ▲분과별 동아리 활동 활성화 ▲동화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대동제 동아리 공연 ▲대동제 이벤트 '마음을 전하는 컨디션' ▲카카오톡 채널 ▲대여사업 ▲청결용품 제공 사업 등이 있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학생회 '하루'는 예산으로 총 2,792,900원을 책정받았다. 하반기 예산안 항목에는 ▲인문예술대 MT ▲인문예술대 MT 예비비 ▲프린트 대여 ▲월간 하루 수기 이벤트



사진: 김지윤 기자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한 찬성 팻말을 들고 있다.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축제 참여 이벤트 ▲'10월의 하루를 선물합니다' 등이 있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BY'의 예산안은 ▲사과대 MT ▲사과대 체전 ▲프린트 지원 ▲중간·기말고사 격려 음료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카카오톡 채널 캐시 ▲대동제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총 3,347,400원이 최종 승인됐다.

디자인대학 학생회 '오브제'는 총 3,172,470원의 예산을 인준받았다. 예산안 내 품목에는 ▲디자인대학 MT ▲프린트 지원 ▲짜잔배·짜후배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전시 문화 ▲월간 디자인 등이 포함됐다.

IT공과대학 학생회 '재회'는 2학기 예산으로 총 3,181,300원을 승인받았다. ▲IT공과대학 MT ▲E-sports ▲일상 운영비 ▲

사업 예비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예산안이다.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YOU:US'는 총 1,454,850원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받았다. ▲창의융합대학 MT ▲프린트 대여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연말 이벤트 ▲한글날 이벤트 등이 예산안 속 세부 항목이다.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 '밀그림'의 예산안은 총 1,169,800원이 인준됐다. 세부 내용에는 ▲미래플러스대학 MT ▲풍문상 콘텐츠 ▲소모임 활성화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동문 인터뷰 ▲캠퍼스 라이프 SNS 공유 이벤트 등이 존재했다.

2022학년도 하반기 예산안 인준을 진행한 김산(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굵직한 행사의 수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학우들에게 혜택이 줄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갔다"고 밝혔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 악자지껄, 올해는 만나서 했다!

## 3년 만에 오프라인 동아리 박람회 개최

동아리 박람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잔디광장에서 재개됐다. 본 행사는 지난 13일과 14일 연일 간 진행됐으며, 정동아리의 2학기 신입부원 모집을 앞두고 홍보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동아리 박람회는 '동아리별 부스'와 '동아리 투어'로 구성됐으며, 동아리연합회를 필두로 총 39개의 정동아리 중 34개의 동아리가 참여했다. 행사에는 휴학생을 포함해서 본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각 동아리 부스는 1일차인 13일은 12시부터 15시까지, 2일차인 14일은 15시부터 18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됐다. 현장에는 ▲공연예술분과 왕산악, 들불, 탈패, 한음, 낙산극회, TRIAX, NOD, brillante, 4호선미크 ▲종교분과 CCC, UBF, JOY 선교회, IVF ▲학술분과 H-LEP, 샘들, FLASH, DC&M, ASPIRE, TeamODD ▲체육분과의 HTM, TURTLES, UP, 피닉스, 바팔로, 한검희, 한얼 ▲평면예술분과 P.I.G, 이무기, 영화다숨, 매나니로, 한성타이포 ▲취미봉사분과 해랑사리우, 별조각, 낭동이가 일차별로 번갈아 부스를 열었다.

댄스배틀과 K-pop 랩댄 플레이 댄스 행사를 주최한 댄스 동아리 'NOD'의 부스는 이를 구경하기 위한 학생들로 둘러싸였다. 이날 NOD는 댄스배틀 '스트릿한성파이터'를 진행하며 다양한 장르의 춤을 학우들에게 소개하고, 춤을 즐기는 방식을 내보이고자 했다. 댄스배틀에서 우승한 김지인(매선1) 학생은 "NOD에 입부해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애정하는



▲'4호선 마이크' 부스에서 학생이 노래 실력을 뽐냈다.

동아리에서 상까지 받아 정말 행복했다"며, "동아리 박람회를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에 다양한 동아리를 알아가고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했다.

기독교 연합동아리 'CCC'는 '단풍나무가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행사를 기획해 학생들의 고민을 나눴다. 더불어 붕어빵과 솜사탕도 만들어 학우들에게 나눔을 진행했다. 해당 부스는 새 학기에 대한 고민을 듣고 이를 위로하기 위함과 동시에, 학우들에게 간식으로 작은 행복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백승하(컴공 2) CCC 회장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한 동아리 박람회를 통해 학우들의 고민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

기뻐"고 말했다.

컴퓨터공학부의 학술 동아리 'DC&M'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삼아 코로나 축소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VR-AR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장정윤(컴공 3) DC&M 회장은 "코로나 학번"으로 입학해 동아리 박람회를 처음 경험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부스를 방문해 대학 생활을 즐기는 기분이 들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태권도 동아리 '한 얼'은 플라스틱모형기와 태권도 대형미트를 이용해 각각 '격파'와 '발차기' 체험을 진행했다. 유형진(사회과 3) 한 얼 회장은 "동아리 내에 전통처럼 이어져 온 행사를 기획했다"며 "신입생



▲'한음' 운영진과 미니 게임 참가자가 팔씨름으로 힘을 겨루고 있다.

때 보기만 했던 부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색다른 기분"이라고 술회했다. 한 얼의 부스에 참여한 권성욱(IT 1) 학생은 "부스 체험 중 발차기는 스트레스가 풀릴 만큼 시원한 체험이었다"고 전했다.

영화 제작 동아리 '영화다숨'은 ▲활동사진 전시 ▲배우 체험 ▲영화 관련 게임 등을 진행했다. 김용우(컴공 2) 영화다숨 회장은 "학생들이 직접 연기를 체험하며 현장에서 긴장감과 재미를 느끼길 바랐다"고 말했다.

전체관측 동아리 '별조각'은 태양계 행성과 MBTI 검사를 결합한 '나와 어울리는 행성은?(우주BTI 검사)'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망원경 체험과 별조각 카드 및 스티커를 배부했다. 김지원(컴공 3) 별조각 회장은 "전체관측 동아리라는 정체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요즘 빈번하게 언급되는 MBTI 검사를 결합해보고자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리 박람회를 주최한 동아리연합회 역시 부스를 열어 행사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부스에서 ▲동아리 박람회 'GOLD CARD' 상품 교환 ▲상품 및 비교과 포인트 수령 명단 작성 ▲동아리별 부스 MAP 소개 및 추천 ▲질의응답 및 상황 통제 ▲편의용품 제공 등을 운영했다. 학생은 총 3개 이상의 동아리 부스를 방문 및 참여한 후, 동아리 부원이 제공하는 GOLD CARD를 수령했다. 이후 동아리연합회 부스를 방문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었다. 동아리연합회는 선착순 20명에게 ▲상상부기 리무버블 스티커팩 15종

▲상상부기 몸통형 그림독 ▲상상부기우산 남색 2단 ▲작은부기인형(고리형13cm) 등의 상품과 최대 40pt의 비교과 포인트를 제공했다.

관심 있는 동아리가 이용하는 동아리방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동아리 투어'도 이뤄졌다. 동아리연합회는 잔디광장 바닥에 종이 안내 발판을 부착해 동아리 투어의 접근성을 높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사전 접수를 한 소수의 인원만이 동아리방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3년 만에 진행된 오프라인 동아리 박람회에 대해 학생들은 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지은(ICT 2) 학생은 "코로나 학번이기에 동아리 박람회를 처음 겪어 어색했으나, 동아리 부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 재미있게 참여했다"고 술회했다. 이에 더해 김서윤(무용 1) 학생은 "1학년이라 처음 겪어본 행사인데, 곧 다가올 축제를 미리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 즐거웠다"고 전했다.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한 권수민(인문 3) 동아리연합회장은 "행사 참여 인원 제한이 풀리고, 동아리방 및 시설물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아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심히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리연합회의 큰 행사 중 하나인 동아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참여해주신 모든 정동아리 회장님들과 부원들, 그리고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잔디광장에서 댄스배틀이 펼쳐졌다.



▲'CCC' 부스에서 부원들이 붕어빵을 만들고 있다.



▲학생이 '피닉스' 부스에서 VR 체험을 하고 있다.

##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문득 찾아온 선물 같은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 제 | 자유 주제

분 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1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5.5매)

혜 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연락처/  
계좌번호 함께 기재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돈에 낚인 청년, 스포츠도박의 먹잇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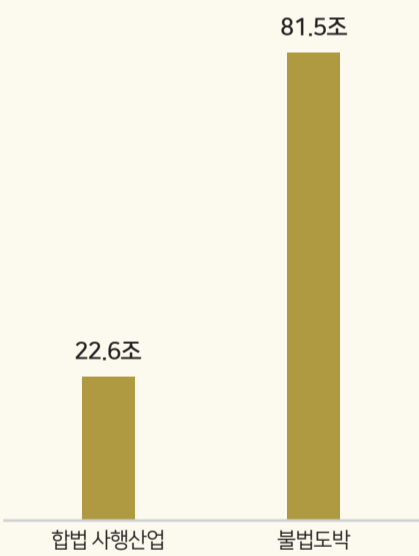
### 청년의 불법도박 장벽 낮아 스포츠와 청년 전반에 피해 합법적 오락으로 작용돼야

오늘날에 이르러 스포츠는 국경과 시간을 넘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는 매체와 스포츠 산업 발전의 산물임은 분명하지만,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 '불법스포츠도박'(이하 불법도박)을 통해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인생을 거는 청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도박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 혹은 스코어 등을 맞춰 돈을 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합법 '스포츠포토'가 존재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도리어 높은 배당률을 위시로 한 불법도박이 각광받고 있어 청년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도박은 최근 몇 년간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합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규모를 넘어섰다는 부분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9년 9월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밝힌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에 따르면, 당해 합법 시행산업 시장 규모가 226조 원인 반면 불법도박의 시장 규모는 전자의 4배에 육박하는 8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보다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불법도박 시장의 성장에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김상겸(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경기 결과에 작용하는 변수가 많아 합법도박에서 단순한 예측으로 승패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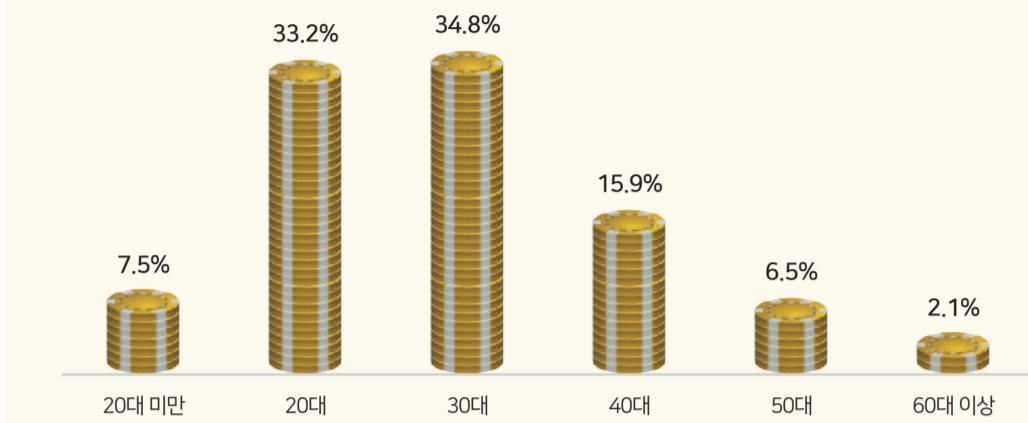
## 2019년 국내 도박 시장 규모

(단위 : 원)



\*자료 출처 :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018년 도박문제 전문 상담 전화 '헬프라인' 이용자 연령대



\*대상 : 헬프라인 이용자 6,417명  
\*자료 출처 :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건전팀) 과장은 "불법도박은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며 무엇보다 금전적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도박이 합법 스포츠포토에 비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맞추기 쉽다는 이유가 아니라 설명이 뒤따른다.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이 제공한 「합법스포츠포토 vs 불법스포츠포토」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은 ▲대상 경기 ▲배팅 유형 ▲구매 시간 ▲환급 시간 ▲환급률 ▲구매상한액 ▲조합 경기 수 등에서 더 큰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게임의 조합, 배당 등에 제한이 있는 합법 사업과 달리, 불법도박은 더 큰 금액을 고배당으로 배팅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다는 말이다. 배당은 경기에 배팅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수치로, 경기의 조합에 따라 2배부터 수십 배까지 다양한 배당이 존재한다. 김 회장은 "더 자유롭고 선택지가 많은 불법도박은 배팅에 자율성이 주어진다. 점에서 큰 유혹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근우(경남도박문제예방지원센터) 센터장은 "배당률과 환급률이 합법 사업에 비해 높다는 점은 청년을 솔깃하게 만드는 수치"라며 "제한 없는 배팅 금액에 넘어가 도박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도박은 누구보다도 청년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2019년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공개한 「2018년 시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박문제 전문 상담 전화 '헬프라인'의 이용자 연령대 중 20대와 30대의 청년층이 68%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층이 불법도박에 유달리 노출된 상황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손쉬운 접근성을 지목했다. 이찬모(한국도박문제

방지유원 홍보사업팀) 선임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불법도박을 접할 수 있다"며 "적은 자본과 노력만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최근 투기 열풍에 힘입어 청년이 도박에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은 더 '쉽게'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불법도박의 시스템이 이에 부합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 잇따른다. 실제로 청년이 불법도박에서 '적중'에 성공한다면 하루 만에 앉은 자리에서 몇백만 원까지도 얻을 수 있다. 박 센터장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벌 수 있다는 점은 청년에게 큰 자극으로 다가온다"며 "이는 되려 상당한 손해를 보거나 점차 중독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별도의 제약이나 인증이 필요 없어 간단하게 큰 금액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도박 노출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불법도박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독성에 있다. 2020년 7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밝힌 「도박 중독 전화상담 서비스 실적」에 따르면, 2015년 2,013건에 달했던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20년 9,687건까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도박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중독 사례는 도박을 통한 수익 실현 여부와 무관하다고 입을 모은다. 돈을 버는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잃는 경우에는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불법도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선임은 "불법도박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은 초반에 'BIG-WIN(적은 돈으로 큰 돈을 딴 경험)'을 겪는다"며 "초반의 성공적인 경험은 오랜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도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한 번 흥미를 느

끼기 시작한다면 강렬한 자극에 뇌가 익숙해져 중독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도박으로 만회하고자 하는 보상심리 역시 영향을 준다"고 꼬집었다.

불법도박은 본인을 넘어 스포츠 문화 전반에 역시 피해를 끼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에 접수된 비리유형 총 269건의 신고 중 32건이 '승부조작·편파판정'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이 집계된 수치다. 이처럼 불법도박은 무엇보다 승부조작 등으로 스포츠 정신이 훼손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된다. 김 회장은 "불법도박으로 인해 스포츠 경기가 조작될 경우 선수들이 더 이상 좋은 경기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며 "전체적인 경기의 수준이 하락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불신 역시 생길 수 있어 문화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제·개정이다. 현재 불법도박 운영자에 대한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를 제1항을 통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한다.

이용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를 통해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라는 내용이 명시되고 있는데, 이때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그 위형성에 비해 처벌 강도가 미약하다는 점과 함께 낱이 갈수록 다변화하는 불법도박에 비해 법이 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과장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는 특성상 일부 불법도박은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최대 처벌 및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도박에 관해서는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도박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관점 역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김 회장은 "불법도박이 성행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 측에서 합법 산업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스포츠포토가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언했다. 이어 이 선임은 "유혹에 넘어가 불법도박을 시작하는 것은 인생을 곤경에 빠뜨리는 지름길이므로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중독돼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센터에서 주 1회, 총 12회의 상담 지원 역시 이뤄지고 있으니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 감축, 감축, 또 감축... 생계형 노인일자리마저

초등학생의 등굣길에서 안전지도를 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27만 원을 받는 노인이 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초등 학교 앞에서 이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줄이고 시장의 논리를 앞세운 시장형 노인일자리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 '질 낮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기능이 사라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해 참여하는 사회활동으로,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도, 키오스크 도우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참여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즉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 달에 총 30시간 일하며 최저시급과 관계없이 월 27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는 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 보수, 생산성이 모두 적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노동 가치를 저하시키는 인식이 있었고, 이것이 고착화됐다"며 "공공 예산의 투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자리라면 일정 정도의 생산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줄이는 대신 시장형 노인일자리 늘리고,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규모를 키워 전체 노인일자리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오갈 데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참여자 대부분이 70~80대의 고령이고, 더욱이 저학력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 결과, 2020년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90%가 70세 이상이었다. 또한, 13.1%가 무학(無學), 31.3%가 초등학교 졸업, 12.4%는 중학교 졸업으로, 절반 이상이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저학력자였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정책연구실) 실장은 "시장형 노인일자리가 기업이 노인을 받아들여야 활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며 "나이와 업무 역량 등

을 고려하면 시장형 노인일자리가 공익활동형 노인일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축소논의는 비단 노인의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신건강적 측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노인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유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노인일자리 미참여자의 우울 의심 비율은 32.3%, 참여자의 의심 비율은 7.3%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최 실장은 "이마저 없다면 바깥활동을 일체 하지 않는 노인이 생길 수 있어 고독사나 복지 사각지대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일자리로 인한 사회적 유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도 등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청장년층이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이기에, 공익활동형 노인일 자리를 통해 충족되는 사회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그 일을 수행하는 노인을 제외하고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를 강조 했다.

일각에서는 노인일자리 발전을 위해 참여자가 직접 일자리 사업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시된다. 김 교수는 "노인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의 독립과 존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논의 구조에 이해당사자인 노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익활동형 노인일 자리를 감축하는 것은 참여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기준만을 적용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주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이를 단순 일자리 정책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술과 경력이 부족해 자력으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줄이고, 그렇지 않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최 실장은 "노인일자리란 단순히 유형별로 수치를 증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특성과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비행 청년

- 비행(飛行)할 그날을 위해 -

새싹이 파랗게 돌아오는 봄철이라는 '청춘'. 안타깝지만 모든 청년이 그 말의 의미대로 젊음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에서 등한시되고 있는 소외 청년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외된 청년의 문제를 과연 개인의 문제, 비행(非行)으로만 다뤄야 할까.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조망해야 할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소외 청년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飛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 속 소외된 청년들이 '비상'하기 위한 발판을 알아보자.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돌봄의 무게를 짊어진 청년들, '영 케어러'

'영 케어러(Young Carer)', 부모 혹은 조부모 등의 가족을 간호하는 청년을 일컫는 말이다. '청년 간병인', '가족 돌봄 청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신체·정신 질병 및 장애, 약물 중독 등을 지닌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만 24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다만 영국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영 케어러로, 만 18~24세 청년들은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각각 분류한다. 현재 국내는 영 케어러의 연령을 비롯한 관련 정의를 논의 중인 단계다. 조영아(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돌봄연구자는 "국내 청년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해 10대에서 30대까지 영 케어러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영 케어러인 10대와 영 어덜트 케어러인 20~30대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실질적으로 연령대별 필요한 지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직 그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지금까지 관심 밖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나마 지난해 영 케어러가 간병 중이던 아버지를 방치해 살인한 '간병살인'으로 이들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올해 보건복지부가 한 발짝 늦게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김서현(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 기준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수의 청년이 가족 돌봄에 지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호 사상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에서는 영 케어러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며 "최근에서야 사회 문제로 대두돼 대중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영 케어러 증가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저출생, 가족 구성의 변화로 자녀의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젊은 층의 노령 가족 부담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변금선(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재 평균적으로 1명의 자식이 2명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며,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고 있다. 동시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은 증가하고 있다"며 "자녀가 부모를 돌볼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전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영 케어러들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간병'이라는 돌봄을 단지 해당 가족 구성원만의 일로만 여기는 우리 사회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효심(孝心)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무급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졌다"며 "돌봄을 사적 영역 안에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로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 케어러가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또 다른 이유에는 이들의 존재를 사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점이 존재한다. 또한 여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상이(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대가족 체제의 자연적 연대 질서 하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사회는 영

케어러가 부모 돌봄의 유일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들이 가진 특수한 성격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갈수록 많아지게 될 영 케어러의 입장에서 돌봄 정책을 바라보고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구에게도 조망받지 못하는 영 케어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갑작스럽게 돌봄 활동에 놓인 영 케어러들은 아픈 가족의 보호자로서 가족에 대한 간병은 물론, 가장으로서의 경제활동 역할 모두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 돌봄연구자는 "성인 돌봄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아이 돌봄과 달리 일정량의 노동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부유한 영 케어러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영 케어러들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일 수는 있으나, 돌봄이 지속될수록 결국 경제적 악순환으로 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간병 활동과 일터로 동시에 내몰린 이들은 보통의 또래 집단이 수행하는 과업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학업,

진로 설계 등 미래에 투자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영국의 영 어덜트 케어러의 29%가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또래 집단 학업 중단율의 4배에 이르렀다.

영 케어러들은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감에 노출되기 쉽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박영준(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간병 스트레스는 우리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식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순명동(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랜 지병에 효자 없다는 격언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잠시 돌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오는 피로감, 또래와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영 케어러들이 겪은 간병 활동은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할 취업의 시기 등이 또래 집단에 비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일련의 과정

이 지속되면 상술한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조 돌봄연구자는 "본인이 가진 모든 경제력을 돌봄에 모두 투자하니 남은 돈도, 커리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돌봄 파산'이 발생한다"며 "돌봄 지원에 대해 얘기할 때는 돌봄이 종료된 이후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정이 이렇어도 불구하고 영 케어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맞춤형 지원책 이전에 애초부터 영 케어러들을 따로 규정한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교수는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의 수를 가구 소득 수준별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수준이 중산층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득 지원보다는 돌봄 관련 각종 정보나 심리 지원 등이 더 중요할 것이다. 반면 중·저소득층에 속한다면 차등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해 돌봄에 대한 총체적인 상담 서비스 등이 포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 케어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정부와 교육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해 학교에 재학 중인 영 케어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조 돌봄연구자는 "해외처럼 당장 대규모의 복잡한 행정 연계를 실현하기보다는, 단순한 연계로 시작해 영 케어러를 발굴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마찬가지로 영 케어러도 신고 의무를 만드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갑자기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이러한 복지 제도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회 경험이 전무하거나 일천한 영 케어러에게 돌봄 활동의 모든 것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노년장기요양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정책이 존재하나, 처음 간병인의 처지에 놓인 청년들에게 이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호주는 간병인을 위한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조 돌봄연구자는 "국내의 신청주의 복지 정책이 상당히 높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영 케어러들이 많았다"고 술회했다.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체계도 요구된다.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은 학업을 비롯한 영 케어러의 과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일정 시간 돌봄을 제공한다던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아일랜드는 영 케어러 카드를 발급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호주에서는 영 케어러들을 위한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학비를 보조 받은 영 케어러의 55%가 하던 아르바이트를 중단 및 축소했다. 특히 전체적으로 76%에 해당하는 인원의 성적도 향상됐다. 이 교수는 "모든 청년은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 전망을 활기차게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여건하에서도 청년이 기꺼이 부모를 위해 '영 케어러'가 되길 자처한다면, 기존의 지원에 더해 더 많은 양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년들이 겪는 간병 스트레스를 관리해 줄 곳 또한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호주와 아일랜드에서도 영 케어러 모임을 통해 그들 간의 소통을 돕고 있다. 김 교수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상담 서비스, 자조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심리·정서 치료 전문가와의 만남은 물론, 유사한 상황에 있는 또래 영 케어러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확보해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영 케어러들의 고충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가가 공적으로 돌봄을 함께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우선 과제로 꼽힌다.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처럼 돌봄도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돌봄은 어떠한 특정 시기 혹은 평생에 걸쳐 필요하기에 국가의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우가 좋지 않아 돌봄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이 줄어 전문성이 견고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돌봄이 지속가능한 구조 속에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

 <b>아일랜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서비스를 찾아 연계해주는 영 케어러 센터</li> <li>• 영 케어러 카드를 지급해 각종 할인 혜택 제공</li> <li>• 영 케어러 그룹 운영으로 소통 및 연대 관계 구축</li> </ul>
 <b>영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가족법』·『돌봄법』을 통해 규정 마련</li> <li>• 정부, 교육기관, 민간이 협력해 영 케어러 발굴</li> <li>• 주당 35시간의 돌봄을 제공한 만 16세 이상의 영 케어러에게 간병인 수당 및 추가 소득 지원</li> </ul>
 <b>호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수당 지급 및 학비 보조 프로그램 운영</li> <li>• 간병인을 위한 종합 포털 사이트 운영</li> <li>• 정부와 협력하는 지원센터를 통해 자조 모임·상담·온라인 교육 제공</li> </ul>



\*자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편집자주〉

많은 대학생은 전공이 취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우리대학에서 경영학 관련 트랙, 컴퓨터공학 관련 트랙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이유다. 하지만 좁아진 취업의 문 앞에서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얻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과반인 52.3%가 일자리와 전공이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현실을 파악한 일부 대학생은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직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기존에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포기하고 이와 전문 분야에 뛰어드는 과정에는 큰 두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딛고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는데 성공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선배가 있다. 김민성(32) 동문이다. 그는 08학번으로 무용학과를 입학해 졸업한 뒤 현재 '가장 좋은 조건, 마지막 조건, 가장 좋은 구성'으로 고객을 만나는 쇼호스트다.

그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전하는 것을 즐기며, 포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원하는 사람보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가 삶을 대하는 이같은 태도를 갖게 된 계기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k0927@hansung.ac.kr



사진 : 김지윤 기자

# 도전과 용기가 키워낸 열정의 쇼호스트

## CJ ENM 소속 쇼호스트 김민성(무용 08) 동문

‘열등감 덩어리’, 김 동문은 자신의 대학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의 열등감은 본교가 원래 지망하던 학교가 아니었다는 데에서 비롯됐다. 그는 어떤 학교를 다니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생으로서, 다른 서울권 대형 대학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부연설명을 덧붙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동시에 전공에 대한 고민도 찾아왔다. 전공인 무용과 관련한 직업을 구해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는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이 때문에 1학년 때는 학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방향의 시간이 허영없이 흘러갔다.

“1학년 때의 성격은 학사경고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고, 학과에 친한 사람도 없는 ‘아웃사이더’였어요. 학교를 소개할 때, ‘서울 소재 4년제’와 같이 어떤 학교인지 부연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도 힘들었죠. 동시에 무용을 통해 소심한 성격을 바꿀 수 있었지만, 무용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열등감이 쇼호스트를 준비할 때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와 달리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된 거죠.”

다소 뜬금없을 수 있지만, 김 동문은 잠시 들른 은행에서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명문대의 금융 관련 전공 졸업자가 아니어도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은행원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후 그는 새로운 목표를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노력했고, 가장 먼저 학교의 인터넷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시도한 일들을 자기 인생에 걸리적거리는데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 자신이 전공한 분야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 학술정보관에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무용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무용을 다른 분야에 활용할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홈쇼핑의 공채 면접 당시 ‘무용과인데 쇼호스트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용과 쇼호스트의 교집합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쇼호스트가 상품을 가져오는 사람, 촬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 등과 협력하는 것처럼 무용이 음악·조명을 담당하는 사람과 관객, 무용수 등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예술이라며, 4년간 함께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강조했던 거죠.”

이외에도 김 동문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는 스스럼없이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로 ‘두려움 극복’을 꼽았다. 타인의 비판적인 말이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태도라는 말이다. 그는 타인의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직접 부딪히는 데에 굉장한 방해 요소라고 판단했다.

“부디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직접 해보기를 추천해요. 비판적인 말과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진심이 담긴 걱정을 보내주는 경우가 적으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남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격려의 말을 잘해주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같은 도전과 경험의 과정을 통해 김 동문은 스스로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재학 시절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강의를 많이 들었던 이유다. 이후 그는 말하기를 활용하면서도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영업’에 큰 매력을 느껴 보험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쇼호스트 또한 ‘말하기’라는 좋아하는 일을 직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가 생겼다고 한다.

“자기 전까지 생각 나는 일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닐 당시에 조별 발표 과제에서 발표자를 맡게 됐어요. 발표를 전부 준비하고 나서 잠에 들려 하는데, 발표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말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재미를 유발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김 동문은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는 순간이 올 때마다 ‘30%의 하기 싫은 일을 해내면 70%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말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그는 현재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노력은 쇼호스트가 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다. 일례로 홈쇼핑의 주요 고객층인 40대 이상의 여성 고객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이들과 평소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하며, 참가패에 가입한 적도 있다. 더불어 TV를 넘어 모바일로 확대되고 있는 홈쇼핑 업계의 변화를 쫓아가기 위해서도 밤낮없는 고민을 이어간다.

“쇼호스트는 고객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없잖아요. 심지어 고객이 나를 호감 있게 보는지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소비자심리학’도 공부했어요. 이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혹은 구매하지 않은 이유를 추적하는

‘소비 프로파일러’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실용신인 등록도 한 상태예요. 홈쇼핑의 플랫폼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할 거예요. 플랫폼 다변화는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가 쇼호스트로서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바는 무엇일까. ‘김민성’이라는 존재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목표다. 쇼호스트로서 판매할 상품과 일거리를 찾아다니지 않고, 상품과 일이 그를 찾아오는 쇼호스트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그는 ‘No.1이 아닌 Only one이 돼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는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타인을 쫓기보다는 자신만의 영역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말하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유재석과 김제동을 목표로 삼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1등과 나는 주어진 여건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1등을 쫓는 것보다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게 됐어요. 저만의 영역을 만들어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제 최종적인 지향점이에요.”

김 동문은 쇼호스트를 지망하는 본교 후배들에게 멋있으며 격려를 전했다. 그는 직업을 가진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산다. 또한 어떤 활동을 함께 있어 쇼호스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기 전에, 도전 하라고 조언한다. 경험의 크기에 대한 생각보다 경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상 속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중요해요. 쇼호스트 입사 시험을 치를 당시 지원조건이 ‘방송 경력 1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방송 경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홈쇼핑 방청을 1년간 한 적이 있어서, 면접에서 홈쇼핑 방청을 방송 경력으로 내세웠어요. 면접관이 ‘방청이 무슨 방송 경력이냐’고 되물었죠. 그때 상품·조명·카메라·쇼호스트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홈쇼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방청 경험을 통해 알게 됐고, 쇼호스트는 협력 속에서 빛이 난다는 것도 배웠다고 답해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평범한 하루의 경험을 어떻게 쇼호스트와 연결 지을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는 후배들에게 ‘가진 것도 없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청춘이니까.’라고 전했다. 이어 늘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그는 포기하고 실패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 일이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는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지 알아보는 길은 시도하고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일이든 흥미가 생기면 일단 시도하고, 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흥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조언한다.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확실한 방법은 시도와 포기의 반복이죠. 저는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기면 바로 시도하고, 경험해보니 저와 맞지 않는 일이라 느껴지면 바로 포기해요. 나와 맞는 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곳의 온도를 직접 느껴봐야 하거든요. 비록 근성과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받을지라도, 직접 경험한다는 점에서 포기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좋았으면 경험이고, 나빴으면 추억 아닐까요?”



사진 : 정상혁 기자

▲김민성 동문이 사옥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김민성

▲김민성 동문이 홈쇼핑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 보이지 않는 블루투스 연결 위한 전파의 여정

무선 이어폰부터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까지.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디지털 제품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무선 제품의 편리함은 어찌나 뛰어나지 이를 맛본 사람들이 유선 제품으로 회귀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이따금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블루투스가 무엇이기에 이 수 많은 기기와 호환되는 것일까?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은 왜 자꾸 끊기는 것일까?

## 선 없이 연결되는 세상

'블루투스(Bluetooth)'는 주로 통신 기기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다.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10세기 덴마크의 왕, 하랄드 블라톤의 별명에서 유래했다. 스칸디나비아반도를 통일한 그처럼 PC, 무선 전화를 비롯한 무선 통신 기술을 통일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의 소망이 담긴 것이다. 이러한 블루투스는 스웨덴의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을 중심으로 인텔, 노키아, IBM 등의 기업이 함께 개발해 1999년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이후 약 20년이 지난 2021년에 이르러서는 대략 47억 개의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출하됐다. 그만큼 스마트폰, PC 등을 비롯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자 기기에 블루투스가 탑재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루투스가 현재까지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술 표준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공통된 규격으로 사용되는 기술이기에, 블루투스가 탑재된 기기라면 생산국과 관계없이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

공학부 명예교수인 이용환(하이베) 대표는 "블루투스라는 국제 표준을 만들면서 이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블루투스 기술은 다른 첨단 기술에 비해 정상급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꾸준히 진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보의 고속도로, 전파

블루투스를 비롯한 무선 통신은 '전파'와 '주파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전파란 전자기파의 줄임말로, 안테나가 발신하는 전기 신호로 이해하면 된다. 이때 전파가 일정한 시간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지칭한다. 기본적인 주파수의 단위는 Hz(헤르츠)이며, 예를 들어 전파가 1초에 1번 진동하면 1Hz라 일컫는다. 더 큰 주파수의 단위는 라디오 주파수에서 찾아볼 수 있는 MHz(메가헤르츠)로, 1초 동안 10<sup>6</sup>번 진동한 전파가 1MHz의 주파수를 갖는다. 이보다 더 큰 단위는 GHz(기가헤르츠)로, 주로 와이파이 통신 등을 표기할 때 사용된다. 1GHz는 1초에 10<sup>9</sup>번, 무려 10억 번 진동한다는 의미다.

전파는 직진성과 회절(回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전파가 더 많이 진동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파수가 높은 전파는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서 멀리 퍼지지 않는다. 즉 전파의 도달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직진성이 커져 특정 방향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반대로 주파수가 낮은 전파는 도달 거리가 길어 휘어져서 장애물을 피하거나 관통해버리는 회절성이 크다. 때문에 장애물 너머까지 비교적 원활

하게 신호가 도달할 수 있다.

한편, 전파의 전송 속도는 주파수 대역의 폭과 비례한다. 블루투스 사용자가 '빠르다'고 느껴지면 한번에 많은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대역폭을 넓혀야 한다. 도로가 넓어야 많은 차들이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 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을수록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오종택(한성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교수는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빨라질수록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더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파법』에 따라 정부가 통신 기업 등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다. 김학용(IoT전략연구소) 소장은 "특정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전파끼리 충돌이 발생해 중요한 통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중 블루투스에는 산업, 과학, 의료 분야에서 자유롭게 무허가로 사용할 수 있는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 중 2.4GHz 대역을 사용 중이다. 이 대역에서는 전파사용에 관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하철(유한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는 "전파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기에 저전력의 전파를 발생하는 개인 무선기기에 많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해당 대역은 신호 감쇠가 크고 회절이 잘 되지 않지만, 이는 통신거리가 짧은 블루투스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블루투스를 비롯해 사용량이 많은 ISM 대역 중 2.4GHz 대역에서는 주파수 간의 간

섭을 피하기 위해 '주파수 호핑'이라는 기술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폴짝(Hopping)거리면서 수시로 통신대역을 비어있는 주파수로 계속해서 바꿔준다는 것이다. 블루투스는 할당된 주파수로 나뉜 79개의 채널을 1초간 1,600여 번 도약하며 다른 전파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이 대표는 "사용자가 일정 주파수를 점유하는 동안 다른 사람도 해당 주파수를 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블루투스는 다른 전파와 겹치지 않도록 점프하면서 다른 주파수와 마주치는 확률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흔히 '페어링'이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기기 간의 주파수 호핑 패턴을 동일하게 하는 과정이다. 블루투스 기기는 각각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연결을 요청하는 기기의 패턴을 다른 기기가 해당 기기의 번호를 식별해 동기화(同期化)하는 과정을 거치면 연결이 된다.

## 멀어도 '톡' 가까워도 '톡'

블루투스가 끊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송신 범위 이탈이다. 바로 블루투스가 연결된 기기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다.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이 연결됐다고 가정했을 때, 각 기기 사이의 거리가 일정 이상 벗어나면 잡음이 발생하며 소리가 끊기게 된다. 여기서 '클래스(Class)'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전파의 세기를 구분하는 등급이다. 일반적으로 블루투스에 사용되는 '클래스 2'는 최대 출력이 2.5mW(밀리와트)로 최대 10m까지 송수신할 수 있다.

다만 송신 범위 이탈 외에도 같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전파가 많이 오고 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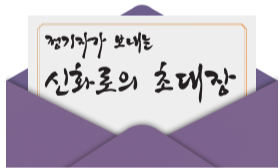
에서 연결이 끊길 수 있다. 블루투스가 이용하는 2.4GHz 대역은 많은 통신 기기들이 이용하고 있어 전파 간의 간섭을 피하기 힘들다. 이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2.4GHz 와이파이 통신은 83MHz의 대역에서 20MHz 대역폭을 갖는 13개의 채널을 이용하는데 이는 블루투스가 이용하는 대역폭과 겹쳐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자레인지 앞에서도 블루투스 연결이 끊길 수 있다. 이 대표는 "전자레인지도 같은 주파수 대역을 써서 음식을 가열한다. 이는 블루투스에 비해 사용 전력이 크기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이 끊기게 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주파수를 계속 바꾸면 순간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다음 순간에는 충돌하지 않는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충돌이 나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재전송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연결이 끊기기도 한다. 전파는 금속이나 물 같은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강도가 약해진다. 감쇠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특히 금속이 전파의 투과율이 가장 낮아 신호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블루투스의 전파 간섭 현상이 필연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에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오 교수는 "통신 기술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파 간의 충돌 문제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장: 파동에서 주어진 시각에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길이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신화로 찾은 고구려의 조상, 부여

부여, 옥저, 동예, 삼한. 삼국시대가 성립되기 이전,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존재하던 국가들이다. 이들 중 흔히 '영고', '1책 12첩' 등의 풍습으로 기억되는 부여는 기실 풍습이 아니라, 고구려와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당장 부여의 건국자는 '동명성왕', 즉 주몽과 유사하다. 또, 고구려 역시 한때는 '졸본부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고구려사에서 부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구려가 부여를 조상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두 나라 건국신화 내용 전개 양상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고구려가 부여의 계승자를 자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여의 건국신화에 대해 가장 먼저 서술한 『논衡』에서는, '타리국'이라는 나라가 배경이 된다. 타리국 왕의 시녀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 임신해 아들을 낳았다. 왕은 그 아이를 죽이려 돼지우리에 버려 보고, 마구간에도 버려 봤지만 그때마다 돼지와 말이 아이를 지켜줬다. 결국 왕은 아이를 살려주고 '동명'이라 이름 지었다. 동명은 활을 잘 쏘는 등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왕은 그런 동명에게 나라를 뺏길까 두려워 지속적으로 살해를 시도했다. 이를 알아챈 동명은 남쪽으로 도망가다 강을 맞닥뜨린다. 이때 동명이 활로 강물을 때리니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건널 수 있었다. 이렇게 남쪽에서 세운 나라가 바로 부여다.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부여의 그것과 내

용 전개상 일치한다. 『위서』에 따르면, 부여 왕에게 사로잡힌 물의 신 하백의 딸은 햇빛에 의해 임신하고 알을 낳는다. 부여 왕은 이 알을 버렸지만 동물들이 알을 지키는데, 그 알에서 나온 이가 주몽이다. 주몽도 동명처럼 활을 잘 쏘는 등 훌륭한 능력을 자랑했고, 부여의 신하들은 그런 주몽을 두려워해 주몽을 죽이려 했다. 이에 주몽은 남쪽으로 도주하고,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로 강을 건넌다. 이후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했고, 신화는 끝이 난다.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두 신화 모두 '신이한 출생-동물의 보호-주변의 위해-도강(渡江)-건국'이라는 큰 틀이 동일하다.

데칼코마니 같은 두 신화 속에는 많은 역사적 사실이 감춰져 있다. 다수의 역사가는 부여가 고구려의 원류임이 주몽 신화에서 드러난다고 전언한다.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하는 내용으로부터 고구려가 부여를 기원으로 여겼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호정(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주몽이 부여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여가 고구려의 조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주몽이 부여의 왕자로 기록돼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고구려는 부여의 계승자임을 표방하기 위해 건국신화를 차용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구려의 집권 세력인 지배의 정당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건국신화'를 활용했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건국 과정을 바탕에 놓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지배 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했다는 말이다. 송 교수는 "고구려는 성장한 이후 관료 체계, 법률을 만드는 등의 체제를 정비했을 뿐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기 위해 건국신화도 다듬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신화가 아닌 부여의 건국신화를 차용한 데에는 집권 세력의 특별함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고구려는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가장 강인한 국력을 자랑했던 부여의 건국신화를 복사해 옴으로써 더 큰 통치 정당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영광(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고구려 지배층이 단순히 부여에서 이주해 온 세력이 아니라, 부강한 국력의 부여를 롤모델로 인식하고 건국신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처럼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제작한 측에서는 고구려가 부여의 실질적 계승자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승호(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교수는 "부여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인식됐고, 그러한 부여의 건국신화를 가져옴으로써 계승자를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자들은 건국신화에서 볼 수 있듯 부여가 삼국시대의 근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 교수는 "건국신화뿐 아니라 동명성왕이라는 호칭을 통해서도 고조선보다 부여가 직접적으로 고구려의 조상이 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건강인사이드

# 눈앞이 아찔, 기립성 저혈압

벌떡 일어남과 동시에 느껴지는 온몸이 휘청거리고 어지러운 증상, 경험해본 적 있는가? 이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근래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2015년 13,803명에서 2019년 21,501명으로 4년 새 50% 넘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은 갑자기 기립하게 되는 경우, 중력에 의해 혈액이 일시적으로 몸의 하부로 쏠리게 된다. 이때 우리 몸은 신체 하부의 정맥과 동맥의 순간적으로 피를 쥐어짜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수축 작용을 한다. 그러나 상기한 과정이 둔하게 작동될 경우, 잠깐 동안 신체는 혈액을 머리카락까지 보내지 못해 뇌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된다. 뇌 혈류량이 감소하면 시신경을 담당하는 후두부에도 혈액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다. 이때 시야의 문제로 인해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것이 기립성 저혈압이다. 기립성 저혈압 증상에 대해 진은선(경희대학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혈압이 낮아지면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고, 특히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 위험할까? 사

실 기립성 저혈압은 질병이 아닌 일시적인 증상에 불과하다.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시혁(서울대학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오히려 혈압이 높으면 그 혈압만큼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저혈압은 불편해도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증상이 있더라도 약물치료가 권고되지 않는다. 기립성 저혈압에 사용되는 약물은 주로 혈압이나 맥박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박창범(경희대학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부작용이 많아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적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누워 있었다면 앉고, 앉고 나서 일어설 때는 한 손으로 짚고 천천히 기립하는 것이다. 김원(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 교수는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탄력스타킹을 착용해 다리 정맥혈의 정체를 막는 것도 증상 빈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와 함께 혈압을 상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염분 섭취를 증가시키는 예방법이 존재한다. 이에 관해 박 교수는 "유증상자가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적정량의 소금 또는 스포츠 음료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희진 기자 fun1120@naver.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 개교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학과가 '또' 신설된다. 올해 신설된 특성화 학과인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SI응용학과 등이 소속돼 있는 창의융합대학의 또 다른 특성화 학과인 융합보안학과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2년간의 왕성한 학과 신설은 본교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트랙제 기반의 학사 운영과 대비되는 모양새를 보인다. 이는 비록 트랙제로 입학한 학생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17학년 이전의 학과(부)제 입학자와 신설된 창의융합대학의 학과 입학자까지 한데 무분별하게 섞인 학생들의 혼란스러운 심정을 대변하는 듯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발생한 트랙 구조조정으로 트랙제 소속의 학생들은 본인이 속한 트랙 폐지 등의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와중에, 지속적인 학과 신설은 학생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트랙제를 내세우며 폐도에 올려놓겠다고 자신하던 대학본부가, 실상 트랙제 유지 자체에는 심드렁하고 학과(부)제로의 회귀를 꿈꾸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과 신설의 혜택은 신입생에게 돌아가고, 트랙제로 입학한 재학생은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새롭게 생겨난 창의융합대학 학과 모두가 응용학문이라는 점에서도 근시안적인 학사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본교가 올해 개교 50주년의 슬로건으로 '후의 50년을 전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애초에 기초학문 전공이 손에 꼽을 정도로 본교에서 또다시 응용학문 전공만을 늘려나가는 행태는 '취업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학문의 산실에 대한 슬픈 자화상으로서 여겨질 정도다. 진정 새롭고 혁신적인 100년로의 도약을 꿈꿨다면, 학과 개설에 보다 다각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공개되지 않은 본교의 실정과 다양한 이해관계 등이 작용해 나름의 최선이었을 수 있다고는 판단한다. 다만, 앞서 말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숙고의 과정이 필요했음을 역설하는 바이다.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을 둘러보더라도 전공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학사 구조조정'이 본교처럼 매년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6년째 트랙제를 운영하는 마당에 '신설이나, 폐지나, 그것이 문제'라는 외는 대학본부의 모습은 일견 무책임해 보이기에 충분하다.

학생들이라고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쪽은 '트랙이나, 학과'의 문제다. 트랙제로 가겠다는 것인지 학과제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 둘이 뒤섞인 학생사회의 모습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이제는 신설과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개선을 말할 때다. 사회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량하고 공고한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입생 혹은 재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트랙 신설, 변경, 통합, 폐지'에 관한 시행계획의 개편도 필연적이다. '문·이과 구분 없이 적성에 맞는 전면적 전공 트랙제', 단순 시행 대학이 아닌 유일한 활성화 대학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한혜정 편집국장



한성대학교(이하 한체대) 제44대 총학생회 With:u가 '한체대 총장 선거의 투표 비율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8일 진행했다. 한체대 정문 앞에 선 기자회견단은 비민주적인 총장 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 결정 과정을 지탄하고, 학생 비율의 확대를 촉구했다. 전체 14명 중 학생이 단 2명뿐인 한체대의 대학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동문의 투표 비율 10을 기준으로 각각 7:2:1로 한다'는 총장선출안 통과를 강행했다. 대학은 평등선거의 원칙이 총장 선거에 적용될 수 없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는가. 부디 대학 사회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중시 여겨지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기자수첩

# 아무도 즐기지 못하는 '눈치게임'

대면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본교 스쿨버스 어플리케이션인 'HSU-스쿨버스'의 오작동 문제가 본격 접화됐다. 본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학생은 어플을 통해 스쿨버스의 시간표, 실시간 버스 위치, 차량인승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어플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에 오류가 있거나 심지어는 작동하지 않았다.

어플에 표시된 스쿨버스의 위치는 대부분 부정확했으며, 심지어는 스쿨버스 운행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도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버스의 승차정원 역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해 어플의 문제점이 적잖게 드러났다. 기자가 해당 취재를 진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취재의 결과는 허망했다. 어플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계자들은 어플의 문제점을 지적 파악하고 있었지만, 오작동 원인을 정확히

확인 간파하지 못해 개선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어플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우리대학은 스쿨버스의 시간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대 운영한다는 식으로 공지할 뿐 배차간격은 알려주지 않는다. 배차간격을 모르니 스쿨버스가 언제 올지 학생들이 알 리가 없다. 결국 학생들은 잘 맞지도 않는 어플의 스쿨버스 위치 현황만 주구장창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대학본부가 학생에게 스쿨버스의 배차간격이나 출발·도착시간을 공지했다면 이러한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성북구에 위치한 7개 대학 중 스쿨버스의 배차간격이나 출발·도착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곳은 우리대학이 유일하다.

버스에 몸을 신기 위해 성북02 버스와 스쿨버스 대기 줄 사이를 뛰어다니는 학생

을 보면서 스쿨버스 배차간격과 출발·도착 시간의 공개 필요성을 더욱 통감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학본부는 하루빨리 ▲배차간격 ▲정문 출발시간 ▲승차 지점 도착시간 등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매 시간대 동일한 배차간격과 규칙적인 출발·도착시간을 형성해 어플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활한 승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전히 어플 오작동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이 스쿨버스 운영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어플 개선도 시급하지만 스쿨버스의 배차간격 및 출발·도착시간 등의 매뉴얼이 구축된다면 교내 구상원이 학교를 오가는 과정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낙산에 올라

# 미래를 위한 대화

2022년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나라 안팎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마·중 갈등, 노조 갈등, 정치 갈등, 젠더 갈등 등이 있다. 심지어 요즘은 파급력이 거대해 과거보다 널리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갈등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보자. 갈등의 압도적 원인은 '이해관계의 충돌'일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갈등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많은 사람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해관계의 조절이 관건인데, 구체적 방안으로는 '힘' 혹은 '대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익을 위해 상대를 짓

밟아왔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강력해진 오늘날,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은 큰 피해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를 도구 삼아 타협해 나가야 한다. 물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잠깐 지구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인간은 우주의 찰나 동안 지구에 머물다 가지만, 지구와 문명은 그 찰나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정체다. 인간의 손으로 지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 아프다.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에서 먼지만큼 작게 찌른 지구의 사진을 보여 "우

리의 만용과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희미하게 빛나는 점(지구)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 사진은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보금자리인 창백한 푸른 점(지구)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싸움을 멈춰야 한다.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대화는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공론(公論)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양정범(상상력 1)

## 의화정

# 수학의 비법

어린 시절의 수학과 과학은 거의 똑같았다. 아이작 뉴턴은 역사가 자신을 과학자나 수학자로 나누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다. 뉴턴은 아르키메데스, 가우스와 함께 세계 3대 수학자이다. 갈릴레이,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모두 그러하다. 나이 든 과학이 자신을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수학은 스스로를 영화감독이라고 여긴다. 예나 지금이나 수학은 현실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이지 않은 수학은 배워서 어디에 쓸니까?"라는 질문에 유클리드는 동전을 던져 줬으며 아르키메데스는 도르래(pulley)를 선보였다. 정말 현실에서 수학을 쓰고는 있을까? 두 사람이 어떤 게임의 승리 규칙을 완전히 알고 있다면 이 게임

은 영원히 무승부일 것이다. 그 승리 규칙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자. 이 장애물이 제시되면 상상력을 통한 창의력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부터 수학의 즐거움이 시작된다. 리처드 파인만은 창의력이란 구속속에서 피어나는 상상력이라고 했다. 이렇듯 창의력은 마주친 장애물을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아래로 지나가는 길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수학은 그 장애물을 제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그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a^2+b^2=c^2$ 이라는 피타고라스의 규칙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시켜  $a^n+b^n=c^n$  인지를 내세우고 여백이 좁다고 우기던 페르마, 당시까지의 수학적 개념의 시각화에 혁명을 이룬 데카르트, 비유클리

트(Non-Euclidean)라는 새로운 공간을 접하게 되면서 엄청난 현상을 증명해 버린 젊은 특이점 직원-우리는 방금 아인슈타인을 만났다. 이들을 통해 수학이 창의력과 상상력의 기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양주동(梁柱東) 선생은 "몇 어찌"(기하幾何)를 통해 경험이 아닌 온전히 머리로만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사고의 훈련이 바로 수학의 힘이라고 하셨다. 문제를 생각(사고)하고 나타낼(표현) 줄 아는 것이 수학의 힘을 키우는 비법이다. 뛰어난 수학자는 무언가를 이해 할 수 있지만 위대한 수학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 이 가을에 책을 읽자는 말이다.

민경진(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낙산만평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강의마켓

올리신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 강의 살 수 있나요?

제시 부탁드립니다

## 기자사령

임수습기자 송성욱(사회과학 1)  
정현진(사회과학 2)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제37회					
	한 성 문 학 상					
	현 상 공 모					



## 당신의 글이 작품으로 변하는 순간

### 모집기간

2022년 9월 19일(월)  
~ 10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 주 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 제출형식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e-mail로만 접수 가능)

###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 발 표

한성대신문 584호 (12월 5일 발행)

###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가작 30만 원)  
시 - 40만 원 및 상패 (가작 20만 원)

###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 당선 80pt (가작 60pt)

###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 한성대신문